

영산강·광주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나선다

광주시 8월까지 집중제거
민간단체·전문가들 참여
토종 보호 생물 다양성 확대

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영산강·황룡강·광주천을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종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서식현황을 파악한 뒤, 이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집중적인 제거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은 23종 1속이다. 특히 광주 주요 하천에 폭 넓게 분포해 있는 돼지풀, 가시상추, 애기수염 등은 번식력이 강하고 주변식물까지 고사시키는 대표적 생태계 교란 생물이다. 이들 교란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선 뿌리뽑기와 줄기제거 등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란생물 퇴치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단 지난 2월 민간보조사업자 공모를 거쳐 최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로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토종서식지를 보전하고 지역 내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생태계교란 퇴치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위험성과 인식확산을 위해 시민 캠페인과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국

비를 확보해 지역 내 저수지, 하천 등에서 퇴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외래종 낚시행사를 개최해 토속어종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광산구는 장곡동과 서봉동 일대 하천을 중심으로 교란 식물 제거작업에 나서고 있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통해 우리 고유종의 서식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환경의식 고취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퇴치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5-18광장 분수대 한달 조기 가동 5-18민주광장 분수대가 한달 앞당겨 조기 가동된다. 광주시 동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도심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분수대를 평년보다 한달 빠른 4월1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30일 오후 시험 가동에 들어간 분수대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 올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역 휴원 학원·교습소 50%대서 10% 이하로 '뚝'

코로나 사태로 개학 연기가 길어지면서 광주 지역에서도 다시 문을 연 학원이 급속히 늘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광주 4761개 학원·교습소 가운데 휴원한 곳은 378곳(7.9%)에 그쳤다.

1차 개학 연기 당시 50%에 육박했던 휴원율은 2차 개학 연기 이후 20%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10%에도 못 미친 상황이다.

광주 확진자가 20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학원 규모도 영세한 곳이 많은 탓으로 교육 당국은 분석했다.

실제로 휴원 학원 수는 대규모 입사고시 학원이 많은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서 220곳이었지만 학원이 훨씬 많은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은 158곳이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교협, 고3 수험생 대상

교사 371명 입시상담 서비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 연기가 장기화해 학습 공백 등을 우려하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직 고교 교사 371명으로 구성된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이 전화 상담(1600-1615)과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 '어디가(adiga.kr)'를 통해 실시간 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교협 대학생 전공멘토단은 고교 시절에 대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학습 방법이나 생활 습관은 어땠는지 등의 대입 전략을 '어디가' 홈페이지에 공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1 해질 18:53 달뜨기 10:26 달짐 00:17

구름 낀 하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7/20	보성	구름많음	2/18
목포	구름많음	5/14	순천	구름많음	6/20
여수	구름많음	9/17	영광	구름많음	2/16
나주	구름많음	3/20	진도	구름많음	5/16
완도	구름많음	7/18	전주	구름많음	5/19
구례	흐림	3/21	군산	구름많음	3/17
강진	구름많음	4/20	남원	구름많음	4/20
해남	흐림	2/19	축산도	구름많음	7/13
장성	구름많음	3/1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면바다(북)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면바다(남)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서부	안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1.0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북~북동 1.0~2.0	
	면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28 23:34
여수	06:50 18:59	00:52 12:41

◇ 주간 날씨

4/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	☀	☀	☀	☀	☁	☁
9/18	6/17	4/19	5/19	5/19	6/17	7/19

◇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전남교육청, 취약계층 학생 277명에 '희망상자' 전달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응원의 희망상자(사선)를 전달했다.

마스크·비타민과 함께 감염병 예방수칙이 담긴 희망상자는 소년·소년가장과 가정위탁 학생 277명에게 30일 우편으로 배송됐다.

이 상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남구 양과동 건강희망텃밭 110개 선착순 분양

도심에서 흙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텃밭이 분양된다.

광주시 남구와 텃밭공동체 호미는 "도심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양과동 '건강희망텃밭'을 분양한다"고 30일 밝혔

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다. 건강희망텃밭은 텃밭공동체 호미가 남구로부터 위탁받아 분양·운영 중인 친환경 텃밭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텃밭은 가족텃밭(5평·16.5㎡)으로 총 110개를 31일까지 선착순 분양하며, 자세한 내용은 텃밭공동체호미(010-8601-526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근로정신대 소송지원 日 '금요행동' 시위 13년만에 잠정 중단

2007년부터 506차례 집회

코로나 추이 보며 재개 결정

지난 13년 동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시위 활동인 '금요 행동'이 '코로나19' 여파에 잠정 중단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일본인들로 구성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매주 금요일 개최하는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세에 506회째인 지난달 28일 이후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시위 참가자들이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으로 구성원들의 안전과 집회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감안해 중단이 결정됐다는 게 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07년 7월 20일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처음 시작된 '금요 행동'은 2007년 양극력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를 계기로 시작했다. 금요행동은 당시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어지던 '수요시위'에서 착안됐다. 단체는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왕복 700km에 달하는 거리를 오가며 매주 금요일 금요행동을 지속해왔다. 이들의 시위는 지난 2010년 7월 미쓰비시 측이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협의

체 구성을 수용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2012년 8월 10일 재개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1월 17일 금요행동 500회를 맞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과 함께 일본 외무성 앞 선전활동과 금요행동 500회 기념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4월까지 금요행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이 왔지만 5월에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정"이라며 "나고야 소송 지원회 회원들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코로나 추이를 보고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체 구성을 수용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2012년 8월 10일 재개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1월 17일 금요행동 500회를 맞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과 함께 일본 외무성 앞 선전활동과 금요행동 500회 기념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4월까지 금요행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이 왔지만 5월에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정"이라며 "나고야 소송 지원회 회원들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코로나 추이를 보고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